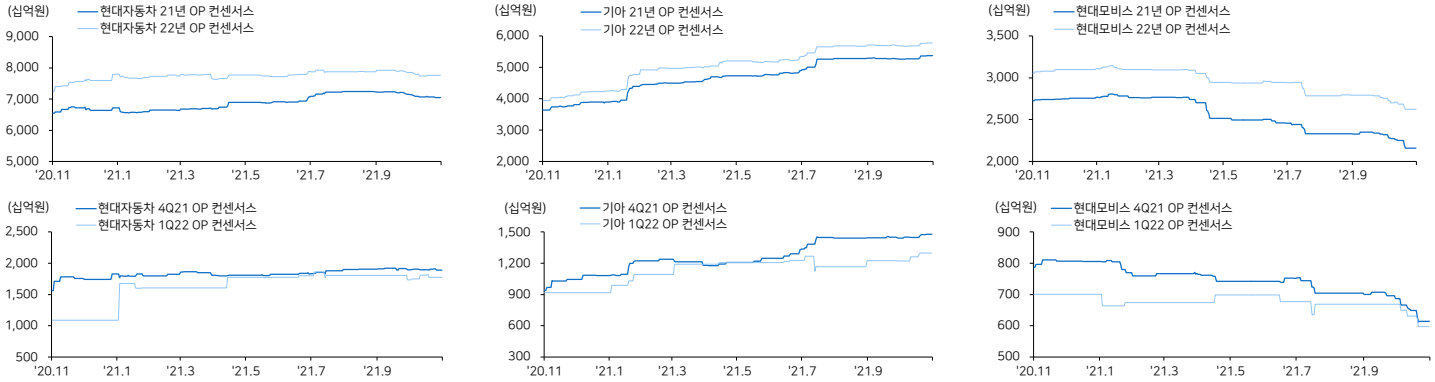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1. 11. 16 (Tu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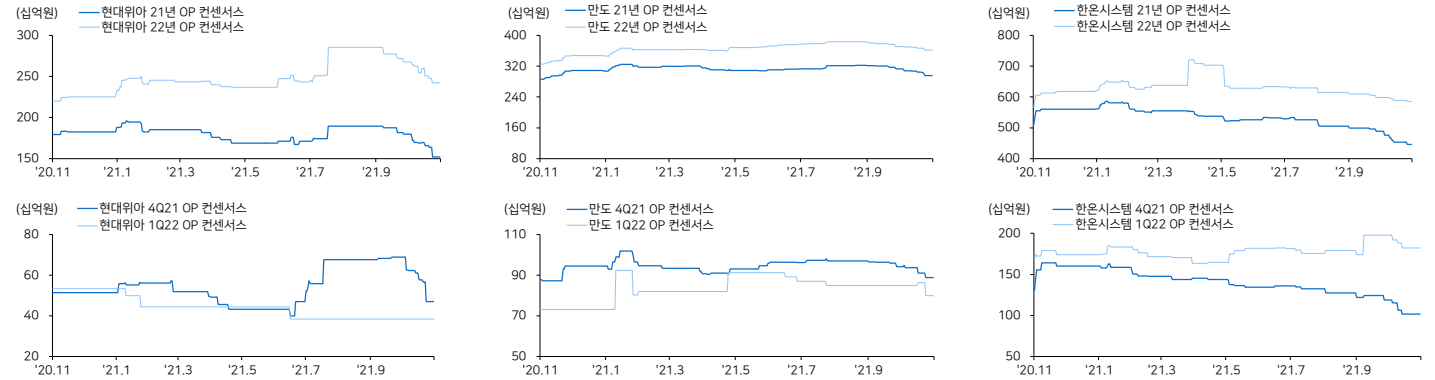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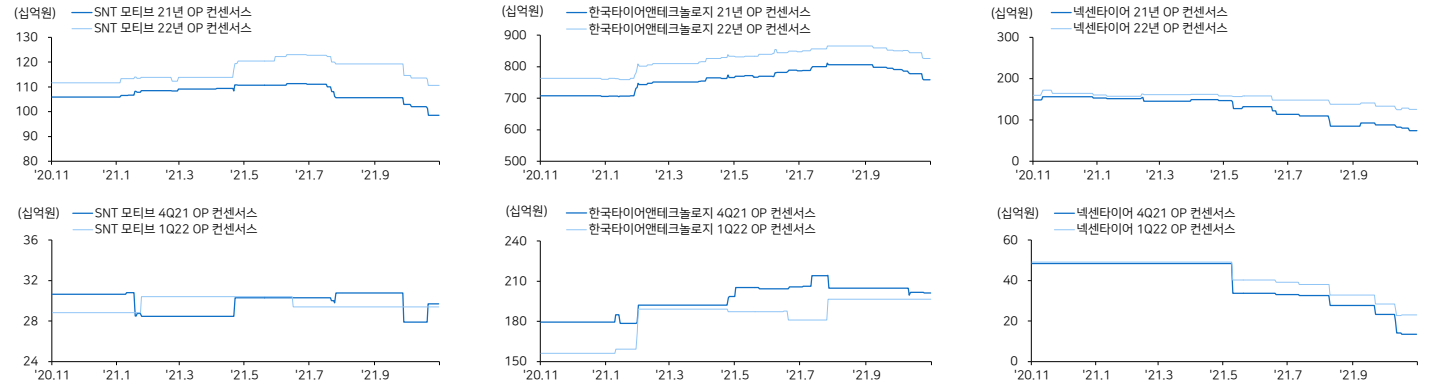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기아 LA오토쇼에서 대형전기SUV 선보여, 정의선 주도권 확실히 (비즈니스포스트)

19일 열리는 LA오토쇼에서 현대차 아이오닉7의 콘셉트카 '세븐'과 기아 EV9의 콘셉트카 '더 기아 콘셉트 EV9'를 동시에 공개할 계획.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 SUV시장을 위한 경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됨.
https://bit.ly/3nf53yj

플라잉카=대중교통' 영상으로 살펴본 현대차 美 UAM '슈퍼널' (THE GURU)

슈퍼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UAM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 오는 '28년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를 사용한 첫 상업 비행을 시작할 계획. 슈퍼널 CEO 신재원 사장이 직접 슈퍼널을 소개하는 모습이 영상에 등장.
https://bit.ly/2YNHYJL

국내 전기차 판매 7만대 넘어 세계 7위… 최대 시장은 '중국' (조선비즈)

올해 우리나라에서 yoy + 96% 성장한 7만 1,600대 전기차가 판매됨.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올해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판매된 국가는 중국으로, 175만대가 팔림.
https://bit.ly/3kD2TH6

테슬라 · GM · BMW도…반도체 부족사태에 '미완성 차량' 출고 (연합뉴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의 여파가 확산하면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일부 부품 · 기능이 빠진 차량을 출고하는 자동차 회사가 늘어남. 테슬라는 USB 포트, GM은 열선 시트, BMW는 터치스크린 등을 제외하고 출고됨.
https://bit.ly/3FnUhMF

현대자동차, 메타버스에서 쏘나타 시승…UAM 등 미래 모빌리티 체험도 (한국경제)

현대차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내 가상공간에서 쏘나타 N 라인을 시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형 SUV 캐스퍼를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로블록스에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로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노력 중.
https://bit.ly/30C8QgC

쿠팡, 요소수 필요 없는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투입 (데일리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1대를 화물운송에 활용하기로 함. 현행법상 화물차 운송사업 중차는 금지돼, 수소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트럭과 교체해야만 했으나,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추가 투입 가능하게 됨.
https://bit.ly/3DlE8Xw

중국서 70% 이상 수입 품목만 79개 · · · 망간 등 시한폭탄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품목이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28개 품목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인 것으로 확인
https://bit.ly/3ClTrho

As autos go electric, Toyota chases hydrogen dream (Reuters)

일본의 자동차산업 근로자는 55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토요타는 전세계 일부 지역은 아직 전기차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 토요타는 여전히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차량 생산에 접근하는 중.
https://reut.rs/3cfKk7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